

톱 MC·개그맨·영화감독·목사·아내폭행...서세원, 굴곡진 인생사

지난 20일 캄보디아서 링거 주사 맞다 심정지
국내 연예인 토크쇼 출발 '서세원쇼' 한때 인기
'조폭 마누라' 제작자로 영화계도 입성해 흥행
2014년 前 아내 서정희 폭행 등 논란 되기도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민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사망한 개그맨 서세원(67)의 삶은 삼하게 굴곡졌다.
1979년 TBC 라디오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한 고인은 1980-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개그맨이었다. '영11', '청춘행진곡',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당시 주요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코미디 세상만사', '공포체험 돌아보지마' 등의 인기 코너도 만들어냈다. 지역 노인들의 꾸준한 인상을 보여준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MC로도 주목 받았다.
특히 연예인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서세원의 스타데이트'는 국내 '연예인 토크쇼' 출발로 통한다. 특히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 포맷을 발전시킨 KBS 2TV 토크 버라이어티쇼 '서세원쇼'로 큰 인기를 누렸다.
바보 연기 등 콩트 위주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웃긴 개그맨이었다. 1995년 'KBS 코미디대상' 대상, 1998년

제24회 '백상예술대상 남자TV예능상', 1999년 '제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등을 받았다. 1997년엔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세원쇼'는 일본 프로그램 표절 의혹과 함께 출연자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태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0년 당시 축구 국가대표인 김남일의 부친을 희화화한 방송이 물의를 빚으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서세원 쇼'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1년 제작한 신은경 주연의 영화 '조폭 마누라'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 제작자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였다. 1986년 직접 감독한 영화 '남자부메'가 크게 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2002년 제작한 '긴급조치 19호', 2004년 제작에 이어 연출까지 한 '도마 안중근' 등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다시 영화계와

떨어졌다.
또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 국외 도피 의혹 등이 불거지고 각종 민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2007년 케이블채널 Y스타 '서세원의 생소 시즌2'를 끝으로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2011년엔 미국의 한 신학 교육기관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서울 청담동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6년 만인 2013년 채널A 토크쇼 '서세원 남회석의 여러 가지 연구소'를 통해 방송에 복귀했으나 반향을 얻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2014년엔 당시 부인이던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정희와는 1982년 결혼해 슬하에 딸 서동주, 아들 서동천을 낳았다. 하지만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영상이 대중에 공개돼 충격을 줬고 두 사람은 결국 2015년 이혼했다.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서세원은 2016년 경기 용인의 타운하우스에서 23세 연하 해금 연주자 김모씨와 결혼했고 딸을 낳았다. 김씨는 명문대 음대 출신으로 지방의 시향에서 연주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2019년 12월 캄보디아로 이주했다. 서세원은 현지에서 거주하며 목회 활동을 비롯 호텔,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을 해왔다.



“영롱한 감성”...노리플라이, 새 디지털 싱글 ‘랑데뷰’



감성 듀오 '노리플라이(no reply)'가 21일 새 디지털 싱글 '랑데뷰(Rendezvous)'를 공개했다. 2018년 4월 발매된 싱글 '나의 봄'(feat. CHEEZE) 이후 5년 만이다.

5년 만의 신곡...6년 만에 발매하는 새앨범 선공개곡

제목 '랑데뷰'는 '만남 약속'과 '우주를 유영하는 두 물체가 서로 만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이는 긴 시간 동안 노리플라이의 음악을 기다려준 팬들과 만난다는 의미를 더한다고 소속사 엠피엠지 뮤직은 전했다.
곡을 작사·작곡한 노리플라이 권순관은 실제 본인의 꿈 이야기를 담았다. 그는 “어둡고 뿌연 배경 속에서 만난 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줬고, 얼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처음 본 순간 사랑이라 확신했다”고 소개했다.
노리플라이 다른 멤버 정육재는 “악기들의 세밀한 플레이를 통해 그리운 감성을 영롱한 사운드로 표현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오윤(OYOON) 작가와 협업한 앨범 아트웍크는 바닷속에 떠 있는 두 사람과 빛나는 윤슬

(반짝이는 잔물결)로 꿈의 잔상을 유영하는 듯한 곡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이번 싱글은 노리플라이가 작업 중인 새 앨범의 선공개 곡이다. 노리플라이는 청량하고 몽클한 트랙들로 채워진 앨범을 여름 시즌 발매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노리플라이의 음반은 2017년 3월 정규 3집 '뷰티풀(Beautiful)' 이후 6년 만이다.
노리플라이는 2006년 심어송라이터들의 등용문인 제17회 유재하가요제에서 '뒤돌아보다'로 은상을 수상했다. 2008년 싱글 앨범 '고백하는 날'로 데뷔한 이후 세 장의 정규 음반 등을 내며 호평 받았다. 주로 아련한 봄기운을 담은 노래를 내놓아 '봄의 듀오'로도 통한다. 오는 5월13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3'에 출연한다.

가수 이찬원 “편스토랑 5승, 연예대상 우수상 만큼 기뻐”

이찬원이 트리플크라운치즈버거&샐러드로 우승을 차지, 5찬원에 등극했다.
21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치즈'를 주제로 한 메뉴 개발 대결 결과가 공개됐다.
박수홍, 박승미, 이찬원, 남보라가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우승은 이찬원의 트리플크라운치즈버거&샐러드가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결 우승 상품은 '편스토랑' 최초 버거&샐러드 세트도 출시돼 더욱 주목을 모았다.
이날 이찬원은 지난 방송에 이어 야구선수 흥성훈과 최준석을 위해 요리를 하고 또 했다. 한 끼 식사로 둘이 합쳐 무려 체중 7kg이 증량했음에도, 두 먹보 형님들의 먹성은 멈추지 않았다. 요리를 위한 주 재료들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도 이찬원은 냉동실에 있던 순대를 꺼내 즉석에서 매콤 고소한 순대볶음을 만들었다.
이어 이찬원은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떡갈비와 번으로 버거도 만들었다. 이찬원은 직접 만든 치즈소스로 풍미를 끌어올렸다. 이찬원의 버거를 맛본 먹보 형님들은 “9회 말 2아웃에서 만루홈런을 친 느낌. 그랜드 슬램이다. 끝났다!”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이찬원의 트리플크라운치즈버거&샐러드는 메뉴평가단의 취향도 저격했다. 체다, 모차렐라, 직접 만든 치즈 소스까지 무려 3종의 치즈를 활용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매콤하면서도 육즙이 그대로 살아 있는 이찬원의 떡갈비도 호평을 모았다. 전문가 평가단은 “시중에 딱갈비를 활용한 샐러드는 없다. 치즈랑 떡갈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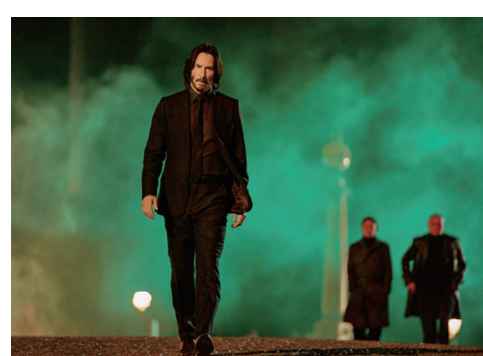
트리플크라운치즈버거&샐러드 우승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감탄했다.
최종 우승은 이찬원에게 돌아갔다. 이찬원은 “치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MZ세대라고 늘 이야기해 왔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욕심이 났다”라며 “연예대상에서 우수상 받았을 때만

큼 기쁜 것 같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이찬원의 이상형도 깜짝 공개됐다. 이찬원은 “외모를 떠나서 심성이 곱고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존 워 4’ 개봉 11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할리우드 스타 키아누 리브스(59)의 액션 영화 '존 워 4'(감독 채드 스타웬스키)가 개봉 11

일 만에 누적 관객 100만명을 넘겼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봉한 '존 워 4'는 이날 오전 이 같은 관객수를 기록했다.
전작인 '존 워 3: 파라벨лум'(2019)가 100만명을 넘긴 속도보다 무려 44일 빠르다. 앞서 '존 워'(2015) 13만명, '존 워 2'는 28만명을 모으는 등 흥행에 실패했다. 하지만 3편이 100만 명을 넘기면서 흥행했고, 그 팬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무기를 활용한 액션이 호쾌하고 각 장면의 합도 좋아 대중성뿐만 아니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NCT 드림, 첫 북미 투어 성료

그들 '엔시티 드림(NCT DREAM)'이 첫 북미 투어를 성료했다.
23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드림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LA 혼다 센터(Honda Center)와 21일 시애틀 클라이메이트 플레지 아레나(Climate Pledge Arena)에서 각각 콘서트 '더 드림 쇼: 인 어 드림'을 열고 29곡씩을 선사했다.
'버퍼링'으로 오프닝을 장식한 데 이어 '맛', '헬로 퓨처' 등 히트곡을 선사했다. 유닛 무대, 청량한 매력의 '캔디(Candy)' 등도 선보였다.
NCT 드림은 앞서 뉴어크,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댈러스 등에서 공연했다. 북미 총 7개 도시에서 7회 공연했다.
NCT 드림은 북미 투어를 마무리하며 SM을 통해 “첫 미국 투어인만큼 모든 멤버들에게 뜻 깊었다.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시즈니(퀸덤) 덕분에 매 공연마다 빛날 수 있었다. 마지막 공연이어서 아쉽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NCT 드림은 오는 29~30일 필리핀 마닐라 에스엠 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SM Mall of Asia Arena)에서 월드 투어를 이어간다.
뉴시스

김민아, 9세 연상 사업가 애인과 결별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김민아(32)가 9세 연상 연인과 결별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구체적인 결별 시기, 사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민아는 지난해 10월 콘텐츠 제작사를 운영 중인 미디어 사업가와 열애를 인정했다.
김민아는 2016년 JTBC 기상캐스터로 데뷔했다. 2020년 JTBC 뉴스 개편과 날씨 코너 폐지로 5년간의 기상캐스터 생활을 끝냈다. 이후 웹예능 '워크맨', KBS3이 '이십세기 히트-트송', 디스커버리코리아 '풀어파일라' 등에 나왔다.

